

벨보텀 팬츠의 실루엣 변화와 시각적 평가

조은혜 · 이영주⁺*

경성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석사 · 경성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Silhouette Changes in Bell Bottom Pants and Visual Evaluation

Eunhye Cho · Young ju Lee⁺*

Master, Dept. of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Kyungsoong University
Prof., Dept. of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Kyungsoong University⁺*

(2016. 11. 22 접수; 2017. 2. 7 수정; 2017. 2. 10 채택)

Abstract

A literature review and survey were conducted regarding the silhouette changes in bell bottom pants and the overall visual evalu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The survey was disseminated from December 2015 to January 2016 to 245 women in their 20s living in Busan. The variables used for the silhouette changes in bell bottom pants were the volume of flare and the flare's starting point, and 20 pairs of terms were selected for visual evalu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Visual evaluations according to the volume of flare in bell bottoms indicated that females in their 20s appraised pants with a flare volume of 54 cm close to a straight silhouette and flare volume of 62 cm (recognized clearly as characteristic of bell bottom pants) to be more attractive and sophisticated than pants with flare volumes of 70 cm and 78 cm. 2. Visual evaluations according to the starting point of the flare in bell bottom pants showed that women appraised their legs as looking thinner when the flare started near the thighs. In a vertical visual evaluation, women appraised that their legs looked longer when the flare started near the knees and pants fit tightly around them. 3. The analysis of silhouette factors affecting the visual evaluation of bell bottom pants indicated that the volume of flare has more effect visually than the starting point of the flare.

Key Words: Bell bottom pants(벨보텀 팬츠), Silhouette(실루엣), Visual evaluation(시각적 평가)

I. 서론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팬츠는 19세기 말부터 여성들도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착용하기 시작하였고, 여성의 활동 영역이 점차 광범

해지면서 활동성뿐만 아니라 패션성을 함께 추구하는 패션 아이템이 되었다. 팬츠에 기능성뿐만 아니라 패션성이 함께 요구되면서 유행에 따라 다양한 실루엣과 색상, 소재들의 팬츠가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여성패션에서 팬츠는 스

Corresponding author ; Young ju Lee
Tel. +82-51-663-4667 Fax. +82-51-245-7408
E-mail : young99@ks.ac.kr

커트에 비해 착용률과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식적 표현을 통해 다양한 문화 예술적 표현 및 개성을 표출하는 매체로도 활용되고 있다(정지년, 권기영, 2008).

인체에 착용됨으로서 완성되는 의복에 대한 시각적 평가는 의복형태와 착용방식 등이 어우러져서 체형 지각에 착시 현상을 일으키며 시각적 평가가 이루어진다(김경희, 1993). 그러므로 의복에 대한 시각적 평가는 전체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실루엣에 대한 관찰, 실루엣 내부의 부분에 대한 형의 관찰, 실루엣과 부분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재해석 및 평가 단계로 이루어진다(금기숙, 1997). 의복은 형태, 실루엣과 디테일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신체적 결함을 보완하고 장점은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착용감이나 시각적 평가 시 스커트에 비해 체형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점차 착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팬츠에 대한 연구는 활동량이 특히 많은 20대 여성들이 원하는 체형이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벨보텀 팬츠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 초에 유행한 무릎 부분에서 밑으로 플레어가 들어간 팬츠로 실루엣이 벨 모양인데서 붙여진 명칭이다(패션전문자료사전, 1997). 1970년대를 대표하는 아이템으로 신체적 단점을 보완하고 활동성까지 겸비한 벨보텀 팬츠는 수년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키니 진에 버금가는 인기를 얻으며 2015년부터 복고 열풍을 주도하는 아이템으로 떠올랐다(패션조선, 2015). 그러므로 복고풍의 유행에 따라 다시 유행하기 시작한 벨보텀 팬츠의 실루엣 특성과 실루엣에 따른 시각적 평가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유행하게 될 벨보텀 팬츠의 실루엣을 예측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벨보텀 팬츠 생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팬츠의 실루엣에 따른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는 와이드 팬츠의 실루엣 변화에 따른 시각적 평가(이정순, 2013), 플레어 팬츠의 시각적 평가(이정순, 2012), 벨보텀 팬츠의 시각적 평가(이정순, 2014), 부츠 컷 청바지의 가상 외관 평가(최진, 2008), 바지허리선 위치와 실루엣 변화에 대한 시각적 연구(김경희, 소연정, 2009) 등이 있다. 그러나 벨보텀 팬츠가 구성상 독특한 실루엣

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유행한 팬츠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벨보텀 팬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벨보텀 팬츠의 시대별 실루엣 변화와 벨보텀 팬츠의 실루엣 변화에 따른 시각적 평가를 통해 앞으로 유행하게 될 벨보텀 팬츠의 실루엣 예측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벨보텀 팬츠의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이론적 고찰

1. 벨보텀 팬츠(Bell Bottom Pants)의 정의

팬츠는 허리와 엉덩이에 걸쳐지면서 다리를 감싸는 구조를 가진 하반신 옷으로 영어로 트라우저즈(trousers), 슬랙스(slacks), 팬츠(pants)라고 부르며 붙여로는 판탈롱(pantalon)이라고 한다(패션 큰 사전, 1999).

플레어드 보텀의 일종인 벨보텀 팬츠는 길이가 긴 백색이나 인디고 블루로 해병들의 바지에서 영감을 얻어 나타난 디자인으로 무릎 부분에서 밑으로 향해 플레어가 들어가 실루엣이 벨 모양인데서 붙여진 명칭이다(패션전문자료사전, 1997). 벨보텀 팬츠는 다리가 날씬하고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 처음에는 주로 여성용 청바지가 많았으나 점차 면바지나 트레이닝 복, 남성용 바지에도 응용되고 있다(두산백과).

2015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밑단이 넓어지는 형태의 팬츠에는 벨보텀 팬츠, 부츠컷 팬츠, 와이드 팬츠가 있다. 와이드 팬츠는 엉덩이부터 넓어지면서 다리 폭 전체가 넓은 팬츠이며, 벨보텀 팬츠와 비슷한 형태를 가진 부츠컷 팬츠(Boots-cut pants)는 부츠를 바지 안에 넣어서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바지의 단이 넓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본 연구에서는 벨보텀 팬츠를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까지는 붙고 허벅지와 무릎사이의 높이에서부터 플레어가 들어가 바지통이 넓어지는 실루엣의 팬츠로 정의하였다.

2. 벨보텀 팬츠의 실루엣 변화

패션이란 어느 특정한 감각이나 스타일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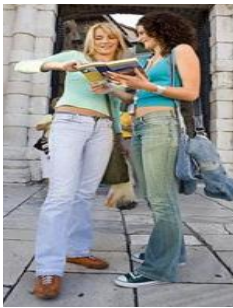
〈그림 1〉 1969-1974년 벨버텀 팬츠
(출처: <http://www.fashionnetkorea.com/>)



〈그림 2〉 엘리펀트 벨즈
(출처: <http://fashionn.com/index.php>)



〈그림 3〉 플랫폼과 통굽
(출처: <http://www.fashionnetkorea.com/>)



〈그림 4〉 1993-1996년 벨버텀 팬츠
(출처: <http://navercast.naver.com>)



〈그림 5〉 1993-1996년 벨버텀 팬츠
(출처: <http://section.blog.naver.com/SectionMain.nhn>)



〈그림 6〉 1993-1996년 벨버텀 팬츠
(출처: <http://navercast.naver.com/>)

정 기간 동안 대중에 의해 공유되는 것으로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며 변화한다. 패션의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의 패션이 새롭게 해석되어 다시 유행 되는 것이며, 그 변화는 일정한 주기와 반복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1980년대 이후부터는 다양한 패션이 함께 공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1900년대 중·후반의 트렌드가 동시다발적으로 복고되면서 패션 주기에 흥미성을 보이고 있다 (유지현, 2004).

김선숙(2013)은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시작된 시기인 1967년부터 2012년까지 여성잡지에 보여지는 팬츠의 스타일 분석을 통해 통이 좁은 스키니 팬츠, 일자형레귤러 팬츠, 밑이 넓은 벨보텀 팬츠 스타일로 팬츠를 유행화 할 수 있으며, 시대별 대표적인 팬츠 스타일은 스키니, 레귤러, 벨보텀 팬츠 스타일이 주기적으로 반복 출현하였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벨보텀 팬츠가 처음으로 유행하였던 시기인 1969년-1974년은 경제 성장과 높아진 교육수준으로 남성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팬츠 슈트가 여성들 사이에서도 착용되었으며, 유니섹스 룩과 캐주얼이 유행하였다. 벨보텀 팬츠는 하이웨스트 형태로 바지 길이가 땅바닥에 닿을 만큼 길고(정삼호, 1998)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 양은 넓은 형태가 많아 최대 20인치까지 넓은 엘리펀트 벨즈(elephant bells) 팬츠가 유행하였고(김미정, 1987), 플레어 양을 넓게 하기 위해 허벅지에서부터 플레어가 시작되기도 하였다(그림 1, 2). 높은 통굽 구두와 플랫폼 슈즈를 긴 벨보텀 팬츠와 함께 착용하여 다리가 더욱 길어 보이게 하였고(그림 3) 다양한 자수 프린트와 서로 다른 소재들을 믹스시킨 벨보텀 팬츠도 유행하였다.

1993년-1996년에는 연예인의 패션이 유행을 선도하기 시작하여 서태지와 아이들이 중심이 된 힙합패션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유행한 히피 룩에 우아함과 세련미가 더해진 네오 히피 룩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채금석, 千村典生, 2007). 벨보텀 팬츠는 1970년대에 유행한 실루엣과 새로운 실루엣이 함께 공존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는데 허리선은 하이 웨이스트와 로 라이즈, 플레어 양이 많은



〈그림 7〉 2004-2006년 벨보텀 팬츠

(출처: <http://www.auction.co.kr/>)

〈그림 8〉 2004-2006년 벨보텀 팬츠

(출처: <https://univ20.com/>)

〈그림 9〉 2004-2006년 벨보텀 팬츠

(출처: <http://m.blog.daum.net/>)

팬츠와 작은 팬츠가 함께 나타났다. 그러나 1970년대의 엘리펀트 벨츠처럼 극단적으로 플레이 양이 넓은 형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플레이 시작 위치는 1970년대에 비해 밑으로 내려와 무릎 근처에서 시작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예클로지의 영향을 받아 밑단을 가위로 잘라 마감 처리를 하지 않은 듯 올이 풀린 내추럴 스타일의 밑단 커팅 디테일이 나타났다. 벨보텀 팬츠의 허리선이 낮아지면서 미드리프 룩(그림 4)의 짧은 상의인 배꼽티가 유행하였다(정삼호, 1998). 굽이 낮은 구두를 착용하였고, 1970년대에 비해 바지 길이는 조금 짧아져 신발이 보일 정도의 길이가 많았다.

2004년-2006년은 인터넷의 발달로 해외 트렌드가 국내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인터넷 문화의 정착으로 온라인 판매가 성장하는 시기였다. 벨보텀 팬츠는 1993년-1996년의 힙합패션으로 낮아진 허리선이 계속 유지 되었고 하이웨이스트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벨보텀 팬츠는 1970년대처럼 신발의 끝만 보이는 긴 길이가 유행했으며 플레이 양이 많은 팬츠와 플레이 양이 작은 팬츠가 공존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벨보텀 팬츠는 1993년-1996년에 비해 플레이 양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플레이 양이 많았던 1970년대의 벨보텀 팬츠는 허벅지부위 근처에서부터 플레이가 시작되어 바지통이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실루엣이라면 이 시기의 벨보텀 팬츠는 플레이 시작 위치가 좀 더 무릎 근처로 내려오면서 허벅지에서 무릎근처까지는 타이트하게 붙고 무릎 근처에서 갑자기 플레이 양이 많아지는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7, 8). 자수나 비즈, 큐빅, 스팅글 장식(그림 9)으로 화려해

진 벨보텀 팬츠가 나타났고(정지년, 권기영, 2008) 앞코는 뿔려있고 슈즈 뒤쪽에 끈이 달려있는 슬링 백 슈즈와 10cm이상의 하이힐을 신어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하였다(그림 9).

2015년은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 태블릿의 급속한 사용증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실시간으로 새로운 패션과 유행에 대한 정보공유가 가능하게 되었다(안인숙, 2014). 2015년부터 다시 유행하기 시작한 벨보텀 팬츠는 1970년대 복고풍의 영향으로 골반부터 무릎까지는 몸에 붙고 과하지 않게 퍼지고 다리가 길고 날씬하게 보이는 벨보텀 팬츠의 체형 보정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하이웨이스트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패션서울, 2016). 팬츠의 길이는 다른 시기와 달리 발목이 보일 정도로 짧아진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그림 11, 12) 이는 늑코어 룩의 영향으로 굽이 낮은 플랫폼슈즈나 스니커즈가 유행하면서 벨보텀 팬츠도 짧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유행하였던 벨보텀 팬츠 스타일 중 가장 짧은 복사뼈 위까지 오는 길이로 다리가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위해 디테일에 다양한 변화를 준 디자인이 유행하고 있다.

1990년대 유행했던 밑단 커팅 디테일은 히피 룩과 그런지 룩이 벨보텀 팬츠에 영향을 주었다면 현재 보여 지는 밑단 커팅의 디테일은 기능적이고 편안한, 특별해지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스타일을 일컫는 늑코어 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진다. 팬츠에 좁고 긴 트임인 슬릿을 앞선과 옆선에 포인트로 주는 디자인과 팬츠 밑단의 길이가 앞뒤 서로 다른 언발란스 컷팅, 앞 중심에 직선 턱박음질 등으로 선에 의한 착시 효과로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한 디테일이 많이 사



〈그림 10〉
2016년 벨보텀 팬츠
(출처: <http://www.donga.com/>)



〈그림 11〉
2016년 벨보텀 팬츠
(출처: <http://www.wkorea.com/>)



〈그림 12〉
2016년 벨보텀 팬츠
(출처: www.dint.co.kr)



〈그림 13〉
2016년 벨보텀 팬츠
(출처: <http://www.vogue.co.kr/>)

용되고 있다(그림 12). 플레어 양이 많은 실루엣은 주로 와이드 팬츠나 필라초 팬츠에서 주로 나타나고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 양은 앞에 유행하였던 벨보텀 팬츠에 비해 많이 줄어든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플레어 양이 작아지면서 플레어 시작 위치가 무릎근처로 낮아지게 되어 무릎까지는 타이트하고 무릎에서 조금씩 넓어지는 실루엣을 주로 나타내고 있다. 즉 현재 유행하고 있는 벨보텀 팬츠의 실루엣은 다리가 길어 보이는 벨보텀 팬츠의 특징을 살리면서 과거의 벨보텀 팬츠에 비해 활동하기 편한 기능적인 팬츠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바지 길이가 짧아지면서 다리 길이가 짧아 보이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착시 효과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디테일을 사용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벨보텀 팬츠의 시기별 실루엣 특징을 고찰해본 결과 벨보텀 팬츠 길이는 점차 짧아지고 플레어 양은 작아지면서 캐주얼한 실루엣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플레어가 시작되는 위치는 점차 무릎부위로 내려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팬츠 길이가 짧아지면서 다리 길이가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한 다양한 디테일이 이용되고 있다. 벨보텀 팬츠는 시대에 따라 허리선 높이, 플레어 양, 플레어 시작 위치, 팬츠 길이, 디테일의 변화를 통해 앞 시대와 차별화된 실루엣과 디자인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벨보텀 팬츠의 실루엣 변화에 따른 시각적 평가의 구성요인을 밝힌다.

둘째,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 양에 따라 시각적 평가에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셋째,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 시작 위치에 따라 시각적 평가에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넷째, 벨보텀 팬츠의 시각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실루엣 요인을 밝힌다.

2. 측정도구

1) 벨보텀 팬츠 패턴 선정

임병렬(2003), 나미향(2000), 일본문화식(2010), 이승렬(2004), 이형숙·남윤자(2007)의 벨보텀 팬츠 패턴으로 팬츠를 제작 한 후 전공자로 구성된 평가자에 의해 외관평가를 실시하여 가장 우수하게 나타난 임병렬식으로 벨보텀 팬츠를 제작하였다.

벨보텀 팬츠의 실루엣 변화를 위해 사용된 변인은 이정순(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플레어 양과 플레어 시작 위치로 설정하였고 바지 길이는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1) 플레어 양

플레어 양은 예비실험에서 우수하게 나타난 임병렬식 패턴의 플레어 양인 54cm와 최진(2008)의 연구에서 시각적으로 벨보텀 팬츠 실루엣으로 확실히 평가된 플레어 양 62cm를 먼저 설정하였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벨보텀 팬츠

〈표 1〉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 양과 플레어 시작 위치

플레어 시작 위치	플레어 양							
	54cm		62cm		70cm		78cm	
	앞	뒤	앞	뒤	앞	뒤	앞	뒤
무릎 위 5cm								
무릎 위 10cm	26cm	28cm	30cm	32cm	34cm	36cm	38cm	40cm
무릎 위 15cm								

의 플레어 양을 참고하여 62cm에서 플레어 양을 8cm씩 늘여 54cm, 62cm, 70cm, 78cm의 4단계로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 양을 설정하였다.

(2) 플레어 시작 위치

플레어 시작 위치는 최진(2008)의 연구와 임병렬, 나미향, 일본문화식, 이승렬, 이형숙남윤자의 벨보텀 팬츠 패턴을 참고하여 무릎 선을 기준으로 무릎 위로 5cm씩 변화를 주어 무릎 위 5cm, 10cm, 15cm의 3단계로 설정하였다. 시각적 평가를 위해 설정된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 시작 위치와 플레어 양, 바지 길이는 〈표 1〉과 같다.

2) 벨보텀 팬츠 제작

벨보텀 팬츠는 제 6차 한국인 인체 치수조사 사업(SIZE KOREA 2010)의 20~29세 여성 표준인체 치수를 기준으로 $\pm 2\%$ 이내의 표준 체형에 가까운 여성을 대상으로 제작하였다. 벨보텀 팬츠는 플레어가 시작되는 위치 3종류, 플레어 양 4종류로 총 12벌을 광목으로 제작 하였다. 벨보텀 팬츠를 착용한 앞과 뒤의 모습을 찍은 후 가로 24cm, 세로 19cm의 사진으로 자극물을 제작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자극물은 〈표 2〉와 같다.

3) 시각적 평가

(1) 시각적 평가 용어

벨보텀 팬츠의 실루엣 변화에 따른 시각적 평가를 위한 용어는 선행연구(김지영, 2005 : 이정순, 2013)를 참고하여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실험을 통해 불편한/편안한, 어색한/자연스러운, 복잡한/단순한, 활동적이지 않은/활동적

인, 매력적이지 않은/매력적인, 유행하지 않은/유행하는, 글래머러스하지 않은/글래머러스한, 개성 없는/개성 있는, 딱딱한/부드러운, 발랄한/점잖은, 클래식한/모던한, 촌스러운/세련된, 특이한/평범한, 경쾌한/무거운, 다리가 짧아 보인다/다리가 길어 보인다, 키가 작아 보인다/키가 커 보인다, 날씬해 보인다/뚱뚱해 보인다, 허벅지가 가늘어 보인다/허벅지가 굵어 보인다, 체형의 단점을 강조 한다/체형의 단점을 보완 한다는 총 19쌍의 평가 용어가 선정되었다.

(2) 시각적 평가 방법

시각적 평가는 벨보텀 팬츠를 착용한 앞과 뒤 모습이 찍힌 자극물을 보여주고, 각 쌍의 평가 용어에 대하여 왼쪽에 배치된 용어에 1점, 오른쪽에 배치된 용어에 대하여 5점을 주어 자극물에서 받는 인상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하게 하는 5점 리커드 척도로 평가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280명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245부가 사용되었다.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되었다.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 양과 플레어 시작 위치에 따른 시각적 평가의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하고 Varimax방법에 의한 직교 회전으로 요인을 추출 하였다.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 양과 플레어 시작 위치에 따른 시각적 평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Duncan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시각적 평가의 구성요인에 대한 플레어 양과

〈표 2〉 벨보텀 팬츠 사진

플레어 시작 위치	플레어 양							
	54cm		62cm		70cm		78cm	
	앞	뒤	앞	뒤	앞	뒤	앞	뒤
무릎 위 5cm								
무릎 위 10cm								
무릎 위 15cm								

플레이어 시작 위치에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과 다중분류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벨보텀 팬츠의 실루엣 변화에 따른 시각적 평가 구성요인

벨보텀 팬츠의 실루엣 변화에 따른 시각적 평가의 구성요인을 밝히기 위해서 벨보텀 팬츠와 관련된 19개의 형용사쌍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Varimax 방법에 의해 직교 회전시킨 결과 추출된 4개의 요인은 <표 3>과 같으며 4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57.18%를 설명하였다.

요인1은 날씬해 보인다/뚱뚱해 보인다, 키가 작아 보인다/키가 커 보인다, 다리가 짧아 보인다/다리가 길어 보인다, 허벅지가 가늘어 보인다/허벅지가 굵어 보인다, 체형의 단점을 강조한다/체형의 단점을 보완한다에서 요인 부하량이

높게 나타나 체형성 요인으로 하였다.

요인2는 발랄한/점잖은, 개성 있는/개성 없는, 특이한/평범한, 경쾌한/무거운, 복잡한/단순한에서 요인 부하량이 높게 나타나 개성 요인으로 하였다.

요인3은 불편한/편안한, 활동적이지 않은/활동적인, 어색한/자연스러운, 딱딱한/부드러운에서 요인 부하량이 높게 나타나 실용성 요인으로 하였다.

요인4는 유행하지 않은/유행하는, 매력적이지 않은/매력적인, 촌스러운/세련된, 글래머러스하지 않은/글래머러스한, 클래식한/모던한에 요인 부하량이 높게 나타나 매력성 요인으로 하였다.

각 요인의 고유치를 보면 체형성 요인이 3.39로 전체 변량의 16.96%를 차지해 벨보텀 팬츠의 실루엣 변화는 체형성 요인의 시각적 평가에 영향을 많이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커트 형태에 따른 이미지평가를 연구한 이영주·최경옥(2010)에서는 체형과 관련된 요인이 13.09%로 귀여운 이미지요인, 매력적 이미지요인, 실용적 이미지 요인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결

<표 3> 벨보텀 팬츠의 시각적 평가 구성요인

	평가용어	요인 적재량	고유값	설명 분산	신뢰도
체형성 요인	날씬해 보인다/뚱뚱해 보인다	.81	3.12	16.41	0.85
	키가 작아 보인다/키가 커 보인다	.79			
	다리가 짧아 보인다/다리가 길어 보인다	.78			
	허벅지가 가늘어 보인다/허벅지가 굵어 보인다	.71			
	체형의 단점을 강조한다/체형의 단점을 보완한다	.67			
개성 요인	발랄한/점잖은	.78	2.76	14.51	0.62
	개성있는/개성없는	.76			
	특이한/평범한	.75			
	경쾌한/무거운	.70			
	복잡한/단순한	.44			
실용성 요인	불편한/편안한	.81	2.69	14.15	0.56
	활동적이지 않은/활동적인	.77			
	어색한/자연스러운	.70			
	딱딱한/부드러운	.52			
매력성 요인	유행하지 않은/유행하는	.77	2.30	12.11	0.70
	매력적이지 않은/매력적인	.63			
	촌스러운/세련된	.61			
	글래머러스하지 않은/글래머러스한	.53			
	클래식한/모던한	.49			
누적설명력 : 57.18 신뢰도 : 0.80					

〈표 4〉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 양에 따른 시각적 평가

시각적 평가	플레이어 양	54cm		62cm		70cm		78cm		F value
		M		M		M		M		
체형성 요인	날씬해 보인다/뚱뚱해 보인다	1.89	A	2.03	B	2.26	C	2.56	D	71.62***
	키가 작아 보인다/키가 커 보인다	3.33	C	3.29	C	2.96	B	2.77	A	55.97***
	다리가 짧아 보인다/다리가 길어 보인다	3.32	C	3.25	C	2.97	B	2.69	A	60.29***
	허벅지가 가늘어 보인다/허벅지가 굵어 보인다	2.08	A	2.10	BC	2.19	C	2.42	D	17.66***
	체형의 단점을 강조한다/ 체형의 단점을 보완 한다	3.05	C	3.04	C	2.87	B	2.63	A	35.17***
개성 요인	발랄한/점잖은	2.29	A	2.95	B	3.35	C	3.49	D	260.92***
	개성 있는/개성 없는	2.78	A	3.29	B	3.57	C	3.67	D	131.21***
	특이한/평범한	3.58	D	2.87	C	2.33	B	2.05	A	402.44***
	경쾌한/무거운	1.81	A	2.22	B	2.44	C	2.52	C	93.96***
실용성 요인	복잡한/단순한	3.85	D	3.38	C	3.09	B	2.88	A	154.58***
	불편한/편안한	2.94	D	2.75	C	2.44	B	2.27	A	69.02***
	활동적이지 않은/활동적인	2.99	D	2.88	C	2.64	B	2.48	A	39.17***
	어색한/자연스러운	3.14	D	2.73	C	2.35	B	2.09	A	164.62***
매력성 요인	딱딱한/부드러운	2.73	A	2.76	A	2.88	B	2.92	B	8.63***
	유행하지 않은/유행하는	2.88	C	2.96	C	2.77	B	2.52	A	25.50***
	매력적이지 않은/매력적인	2.88	D	2.78	C	2.54	B	2.34	A	47.45***
	촌스러운/세련된	3.02	D	2.69	C	2.38	B	2.09	A	149.88***
	글래머러스하지 않은/글래머러스한	2.99	A	3.08	B	3.05	B	2.93	A	3.47**
클래식한/모던한	3.00	C	2.83	B	2.76	AB	2.73	A	14.88***	

과와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스커트에 비해 팬츠의 실루엣이나 형태는 이미지와 관련된 요인에 비해 체형의 시각적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직도 팬츠는 기능적인 요소가 중요한 아이템으로 실용성 요인 또한 시각적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2.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 양에 따른 시각적 평가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 양에 따른 시각적 평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벨보텀 팬츠는 플레어 양에 따라 모든 시각적 평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 양은 벨보텀 팬츠의 시각적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체형성 요인에서는 플레어 양이 54cm일 때 가장 날씬해 보이고 78cm일 때 가장 뚱뚱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종적평가 항목 인 다리 길이는 플레어 양이 54cm, 62cm일 때 키가 커 보이고 다리 길이가 길어 보인다고 평가하였고, 78cm일 때 키가 가장 작아 보이고 다리 길이가

짧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허벅지는 54cm일 때 가장 가늘어 보이고, 78cm일 때 가장 굵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 플레어 양이 54cm와 62cm일 때가 70cm, 78cm에 비해 하반신 체형의 단점이 보완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무릎에서 일자로 내려가는 실루엣에서 플레어서 조금 더 들어간 54cm와 최진(2008)의 연구에서 시각적으로 확실히 벨보텀 팬츠 실루엣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62cm의 플레어 양이 20대 여성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다리가 길고 가늘어 보이게 하는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플레어 양이 많은 벨보텀 팬츠는 오히려 다리가 짧아 보이고 허벅지와 발목이 굵어 보이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 양은 둘레의 의미인 가늘다/ 굵다의 횡적인 시각적 평가보다는 길이의 종적인 시각적 평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20대 여성들이 선호하는 벨보텀 팬츠 생산을 위해서는 플레어 양 설정이 중요하며, 플레어 양이 많은 디자인에서는 키가 작고 다리 길이가 짧아 보이고 허벅지가 굵어 보일 수 있으므로 착시 효과를 이용한 디테일이나 무늬 등을 활

용하여 종적인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성 요인에서는 플레어 양이 54cm일 때 발달하고 경쾌하며 단순한 벨보텀 팬츠로 평가되었고, 78cm의 벨보텀 팬츠는 점잖고 개성 없고 무겁고 복잡하게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오랫동안 몸에 붙고 바지 부리 폭도 좁은 스키니 팬츠를 착용한 20대 여성들은 플레어 양이 많이 들어간 팬츠는 바지 부리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복잡하고 무겁게 느끼고, 20대 여성들에게 익숙한 실루엣이 아니므로 특이한 형태로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개성 요인은 체형성 요인에 비해 플레어 양에 따라서 시각적 평가에 더 큰 차이를 나타내어 벨보텀 팬츠의 실루엣에 익숙하지 않아 플레어 양에 따라 벨보텀 팬츠의 시각적 평가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용성 요인에서는 플레어가 많이 들어간 78cm의 벨보텀 팬츠가 불편하고 활동적이지 않으며 어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 플레어 양이 많은 70cm, 78cm의 벨보텀 팬츠가 플레어 양이 54cm, 62cm인 벨보텀 팬츠에 비해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플레어 양이 많아지면 바지 부리가 곡선을 이루게 되므로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0대 여성들은 플레어 양이 많은 벨보텀 팬츠를 어색한 실루엣으로 평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20대 여성들은 익숙한 스키니 팬츠 실루엣에서 변화가 큰 팬츠에 대해 아직은 어색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젊은 시절 플레어가 많이 들어간 벨보텀 팬츠를 보고 착용하기도 하였던 50대와 60대 여성들과는 시각적 평가에서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매력성 요인에서는 플레어 양이 78cm인 벨보텀 팬츠가 가장 유행하지 않은, 매력적이지 않은, 촌스러운, 클래식한 팬츠로 평가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각적 평가 시기가 벨보텀 팬츠가 유행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아직 플레어가 많이 들어간 벨보텀 팬츠 실루엣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플레어 양이 지나치게 넓은 것보다 적당한 너비의 벨보텀 팬츠가 매력적

<표 5>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 시작 위치에 따른 시각적 평가

시각적 평가		플레어 시작 위치			F value
		5cm M	10cm M	15cm M	
체형성 요인	날씬해 보인다/뚱뚱해 보인다	2,25 B	2,16 A	2,15 A	3,19*
	키가 작아 보인다/키가 커 보인다	3,13 B	3,04 A	3,09 AB	2,55*
	다리가 짧아 보인다/다리가 길어 보인다	3,09 A	3,01 A	3,07 A	1,52
	허벅지가 가늘어 보인다/허벅지가 굵어 보인다	2,26 B	2,19 AB	2,16 A	2,40*
	체형의 단점을 강조 한다/ 체형의 단점을 보완 한다	2,87 A	2,91 A	2,91 A	0,54
개성 요인	발랄한/점잖은	3,06 A	2,97 A	3,03 A	1,95
	개성 있는/개성 없는	3,42 B	3,28 A	3,28 A	6,47**
	특이한/평범한	2,66 A	2,76 B	2,70 AB	2,21*
	경쾌한/무거운	2,71 A	2,77 A	2,78 A	1,90
	복잡한/단순한	3,42 B	3,27 A	3,21 A	12,68***
실용성 요인	불편한/편안한	2,52 A	2,61 B	2,67 B	5,86**
	활동적이지 않은/활동적인	2,59 A	2,79 B	2,87 B	19,33***
	어색한/자연스러운	2,47 A	2,60 B	2,66 B	7,62***
	딱딱한/부드러운	2,87 B	2,76 A	2,83 AB	4,26*
매력성 요인	유행하지 않은/유행하는	2,74 A	2,79 A	2,82 A	1,46
	매력적이지 않은/매력적인	2,54 A	2,68 B	2,69 B	7,22**
	촌스러운/세련된	2,43 A	2,62 B	2,58 B	10,88***
	글래머러스하지 않은/글래머러스한	3,08 B	2,96 A	3,00 AB	3,82*
	클래식한/모던한	2,88 A	2,81 A	2,81 A	2,18

*p<.05, **p<.01, ***p<.001 A(B : Duncan 사후검증 결과를 나타낸 것임.

이라고 한 이정순(2013)의 선행연구와 일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른 요인에 비해 실용성 요인이 플레어 양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 시작 위치에 따른 시각적 평가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 시작 위치에 따른 시각적 평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체형성 요인에서는 다리가 짧아 보인다/ 다리가 길어 보인다. 체형의 단점을 강조 한다/체형의 단점을 보완 한다 항목을 제외하고 플레어 시작 위치에 따라서 시각적 평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플레어 시작 위치가 무릎 위 10cm와 15cm일때 날씬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무릎 위 5cm가 뚱뚱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플레어 시작 위치가 무릎 위 10cm일 때 키가 가장 작아 보이고, 5cm일 때 키가 커 보이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플레어 시작 위치가 무릎 위 15cm일 때 허벅지가 가늘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플레어 시작 위치 5cm일 때 허벅지가 굵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 시작 위치가 무릎보다 높아 허벅지 가까운 위치에서부터 여유가 있는 벨보텀 팬츠가 무릎까지 피트되어 착용자의 하반신 체형을 드러내는 팬츠에 비해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여 날씬해 보이고 허벅지가 가늘어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플레어 시작 위치가 무릎에 가까울수록 뚱뚱해 보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키는 무릎 가까운 곳까지 피트하고 플레어가 시작 될수록 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 요인에서는 발랄한/집값은, 경쾌한/무거운에서는 플레어 시작 위치에 따라 벨보텀 팬츠의 시각적 평가에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플레어 시작 위치가 무릎 위 10cm와 15cm일때 개성 있는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복잡한/단순한 항목에서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 시작 위치에 따라 가장 큰 유의차를 보였는데 플레어 시작 위치가 무릎위 10cm와 15cm가 복잡한 이미지로 평가되었고, 5cm가 단순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즉 플레어가 무릎과 떨어져 허벅지와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는 벨보텀 팬츠가 개성 있고 플레

어가 무릎에 가까운 곳에서 시작할 수 록 단순하고 개성 없는 팬츠로 평가되었다.

실용성 요인에서는 플레어 시작 위치가 무릎 위 5cm일 때 불편한 이미지로 평가되었고, 10cm와 15cm에서 무릎 위 5cm에 비해 편안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 시작 위치에 따라서 시각적 평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활동적이지 않은/활동적인 항목에서는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 시작 위치가 무릎 위 5cm가 가장 활동적이지 않은 이미지로 평가되었고, 10cm와 15cm에서 활동적인 이미지로 평가 되었다. 즉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 시작 위치가 무릎에 가까울수록 무릎 부위가 타이트하므로 무릎의 운동량에 방해로 주어 불편한 이미지로 느끼고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 시작 위치가 무릎보다 높을수록 무릎 부위의 여유량이 많아지므로 다리의 동작에 방해로 주지 않게 되어 활동적인 팬츠로 평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플레어 시작 위치가 무릎 위 5cm일 때 가장 어색해 보이는 이미지로 평가되었고, 10cm와 15cm일 때 5cm에 비해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평가 되었다. 플레어 시작 위치가 무릎 위 10cm일 때 딱딱한 이미지로 평가되었고, 5cm일 때 부드러운 이미지로 평가 되었다.

유행성 요인에서는 플레어 시작 위치가 무릎 위 10cm와 15cm일 때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 되었다. 플레어 시작 위치가 무릎 위 5cm가 촌스러운 이미지로 평가되었고, 10cm와 15cm일 때 5cm에 비해 세련된 이미지로 평가 되었다. 즉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 시작 위치는 무릎보다 높을수록 매력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키니 실루엣에서 와이드 실루엣으로 유행이 변화되는 시점이므로 20대 여성들은 무릎까지 타이트한 실루엣보다는 플레어가 허벅지 근처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실루엣을 더 유행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플레어 시작 위치가 무릎 위 5cm일 때 글래머러스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무릎까지 밀착된 벨보텀 팬츠가 여성의 허벅지 실루엣을 그대로 드러내므로 글래머러스한 이미지로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플레어 시작 위치가 무릎 위에서 가장 가까운 5cm일 경우 촌스럽고 유행

〈표 6〉 벨보텀 팬츠의 시각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실루엣 요인

요인	실루엣 요인	SS	DF	MS	F
체형성	플레이어 시작 위치	0.87	2	.043	.03
	플레이어 양	107.14	3	35.712	29.28**
	플레이어 시작 위치 X 플레이어 양	1407.37	6	1.220	2.54*
개성	플레이어 시작 위치	1.56	2	.777	3.26
	플레이어 양	20.47	3	6.823	28.62**
	플레이어 시작 위치 X 플레이어 양	373.25	6	.238	.08
실용성	플레이어 시작 위치	9.92	2	4.958	6.69*
	플레이어 양	111.79	3	37.263	49.82**
	플레이어 시작 위치 X 플레이어 양	4.49	6	0.748	1.97
매력성	플레이어 시작 위치	1.17	2	0.586	1.59
	플레이어 양	80.43	3	26.810	72.49**
	플레이어 시작 위치 X 플레이어 양	2.22	6	0.370	.45

*p<.05, **p<.01

하지 않는 이미지로 평가되었고, 허벅지까지 타이트하다가 플레이어가 시작 되는 무릎 위 15cm인 벨보텀 팬츠는 다리가 길어 보이고 허벅지가 가늘어 보이는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김정미(2012)의 연구에 의하면 벨보텀 팬츠가 주는 실루엣 이미지는 다리가 길어 보이고 허벅지가 가늘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플레이어 시작 위치가 무릎 위 15cm일 때 벨보텀 팬츠의 다리가 길어 보이고 허벅지가 가늘어 보이는 장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실루엣 이미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벨보텀 팬츠의 플레이어 시작 위치는 전체적인 여유분 설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진(2008)의 연구에 의하면 벨보텀 팬츠는 착용 시 허리, 엉덩이, 넓다리 부위가 타이트한 핏을 나타냄으로 착용감을 우수하게 하는 여유분 설정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는데 벨보텀 팬츠의 디자인이나 패턴 설계 시 플레이어 시작 위치 설정에 의해서 벨보텀 팬츠의 여유분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권윤희외 2인(1998)의 연구에 의하면 벨보텀 팬츠의 피복압이 가장 큰 부위는 무릎점이며 플레이어 기준선을 높게 설정함으로 인해 압박감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벨보텀 팬츠의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릎보다 높은 곳에서 플레이어가 시작되게 하여 여유분을 줌으로써 피복압을 줄여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무릎선에 가까운 곳에서 플레이어가 시작되는 벨보텀 팬츠의 경우는 신

축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하여 무릎점에 주는 압박감을 줄여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벨보텀 팬츠의 시각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실루엣 요인

벨보텀 팬츠의 실루엣 요인은 각각 시각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상호 작용하여 시각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이상의 조형 요소가 상호 작용하여 시각적 평가를 나타내는 등 자극물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각적 평가를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벨보텀 팬츠의 시각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실루엣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벨보텀 팬츠의 체형성 요인의 시각적 평가에는 플레이어 양과 플레이어 양과 플레이어 시작 위치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 요인에서는 플레이어 양만이 시각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용성 요인에서는 플레이어 시작 위치와 플레이어 양이 시각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매력성 요인의 시각적 평가에는 플레이어 양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벨보텀 팬츠의 실루엣에 대한 시각적 평가에는 플레이어 양이 플레이어가 시작 하는 위치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레이어 시작 위치는 벨보텀 팬츠의 실용성 요인에서만 시각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플레이어 양과 플레이어 시작 위치가 상호작용하여 시각

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체형성 요인에서만 나타났다. 개성과 매력성 요인의 시각적 평가에는 플레어 시작 위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플레어 양만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벨보텀 팬츠의 디자인을 위해서는 실루엣 요인 중 플레어 양의 설정이 플레어 시작 위치에 비해 중요하고 팬츠의 실용성과 체형적인 보완을 위해서는 플레어 양과 함께 플레어 시작 위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 론

벨보텀 팬츠의 실루엣 변화와 벨보텀 팬츠의 실루엣 변화에 따른 시각적 평가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969년부터 2015년까지의 벨보텀 팬츠의 실루엣 특징을 고찰한 결과 벨보텀 팬츠 실루엣 변화의 중요 요인인 플레어 양은 점차 작아지면서 캐주얼하고 활동성이 강조된 실루엣으로 변화되고 있다. 플레어 시작 위치는 점차 무릎부위로 내려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팬츠 길이가 짧아지면서 다리 길이가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한 다양한 디테일이 이용되고 있다. 1969년부터 착용되어 유행하기 시작한 벨보텀 팬츠는 유행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착용되어졌으나 허리선 높이, 플레어 양, 플레어 시작 위치, 바지 길이, 디테일의 변화를 통해 앞 시대와 차별화된 디자인을 나타내고 있다.

2. 벨보텀 팬츠의 실루엣 변화에 따른 시각적 평가의 구성요인은 체형성 요인, 개성 요인, 실용성 요인, 매력성 요인의 4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벨보텀 팬츠의 실루엣 변화는 체형성 요인의 시각적 평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 양에 따른 시각적 평가에서는 체형성 요인에서는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 양이 많을수록 하반신이 더 굵고 뚱뚱하게 보이고 플레어 양이 작을수록 키가 크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어 20대 여성들은 플레어 양이 작은 벨보텀 팬츠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 요인에서는 벨보

텀 팬츠의 플레어 양이 작을수록 발달하고 경쾌하며 개성이 있는 이미지로 평가되었고, 실용성 요인에서는 플레어 양이 많아 무릎부위에 여유가 많은 벨보텀 팬츠가 더 편하고 활동적인 팬츠로 평가되었다. 매력성 요인에서는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 양이 작을수록 매력적이고 세련되고 유행하는 팬츠로 평가하였다.

즉 오랫동안 스키니 스타일 팬츠에 익숙해있는 20대 여성들은 플레어 양에 의해 실루엣 변화가 큰 벨보텀 팬츠 보다는 스키니 팬츠의 실루엣에 가까우면서 유행을 접목한 벨보텀 팬츠를 더 세련되고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개성을 추구하고 유행에 민감한 20대 여성들을 위한 벨보텀 팬츠는 플레어 양을 작게 하여 실루엣 변화가 크지 않게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 시작 위치에 따른 시각적 평가에서는 체형성 요인에서는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 시작 위치가 무릎보다 더 높은 곳에서 시작하여 여유분이 있는 팬츠가 더 날씬하고 가늘어 보이지만 키는 플레어가 시작하는 위치가 무릎에 가까운 팬츠가 더 커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어 황적인 시각적 평가는 허벅지에 가까운 곳에서 플레어가 시작되어 여유분이 있을 때가 가늘어 보이고, 종적인 시각적 평가는 무릎부위까지 타이트하게 붙고 플레어가 무릎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었을 때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성 요인에서는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가 무릎 보다 높은 곳에서 시작할 때 더 개성있는 팬츠로 평가되었고 실용성 요인에서는 플레어의 시작 위치가 높아 여유분이 무릎보다 높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벨보텀 팬츠가 더 편안하고 활동적이며 자연스러운 실루엣으로 평가되었다. 매력성 요인에서는 플레어의 시작 위치가 높을수록 더 매력적이고 세련된 벨보텀 팬츠로 평가하였다. 즉 20대 여성들은 벨보텀 팬츠의 플레어가 무릎에서 시작하는 것 보다는 허벅지와 무릎 중간 정도에서 시작되는 실루엣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20대 여성들을 위한 벨보텀 팬츠는 플레어가 허벅지와 무릎 사이에서 시작되어 실루엣 변화가 크지 않은 자연스러운 실루엣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벨보텀 팬츠의 시각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

는 실루엣 요인은 플레어 양이 플레어가 시작하는 위치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레어 시작 위치는 벨보텀 팬츠의 실용성 요인에서만 시각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플레어 양과 플레어 시작 위치가 상호작용하여 시각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체형성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과 매력성 요인의 시각적 평가에는 플레어 시작 위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플레어 양만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20대 여성을 위한 벨보텀 팬츠 디자인에서는 실루엣 요인 중 플레어 양의 설정이 중요하고 팬츠의 실용성과 체형적인 보완을 위해서는 플레어양과 함께 플레어 시작위치가 함께 고려되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 가지 소재인 광목으로만 벨보텀 팬츠가 제작되어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모든 소재로의 확대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실루엣 요소가 플레어 양과 플레어 시작 위치로 한정하여 이루어져 앞으로 길이 등 더 다양한 요소를 변인으로 확대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권윤희, 이연순, 나미향. (1998). 블루진 의 설계와 피복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2), 121-130.
- 김경희. (1993). *플리츠 스커트의 플리츠 수와 스커트 길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평가*.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 소연정. (2009) 청바지 패턴제작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3(10), 1541-1551.
- 김미정. (1987). *바지패션에 관한 고찰-1978년에서 1987년까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숙. (2013). 패션 주기 이론 구성을 위한 팬츠 스타일 트렌드 분석 : 1967~2012년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7(6), 86-798.
- 김정미. (2012). 와이드 팬츠의 시각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4(2), 147-156.
- 김지영. (2005). *베이직 팬츠의 허리선 위치와 라운드 벨트 폭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평가*.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미향. (2000). *산업패턴설계*. 서울: 교학연구사.
- 메릴린 드롱, 금기숙 옮김. (1997). *복식조형을 보는 시각*. 서울: 이즘.
- 안인숙. (2014). 여성 스커트 길이 스타일 변화주기에 관한 연구 : 1950년부터 2013년까지 Vogue 자료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22(4), 543-554.
- 유지현. (2004). 패션 주기의 터닝 포인트 분석 : Vogue 1997년과 2002년도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2(3), 327-338.
- 이승렬. (2004). *이승렬의 패턴이야기2*. 서울: 기술과 감성.
- 이영주, 최경옥. (2010). 스커트 형태에 따른 남녀 대학생의 이미지 평가.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2(5), 626-632.
- 이정순. (2012). 플레어 팬츠의 바지부리 폭과 허리선 위치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평가.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4(4), 127-137.
- 이정순. (2013). 와이드 팬츠의 실루엣 변화에 따른 시각적 평가.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5(1), 21-30.
- 이정순. (2014). 벨 버텀 팬츠의 시각적 평가.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6(1), 15-25.
- 이형숙, 남윤자. (2007). *여성복 구성*. 서울: 교학연구사.
- 일본문화복지학원 외 2명, 조영아 옮김. (2010). *스커트 팬츠2*. 서울: 시사출판사.
- 임병렬. (2003). *팬츠 제도*. 서울: 전원문화사.
- 전수정. (2015.12.25). 시대별로 즐기는 복고 패션 -1970년대, 자료검색일 2016. 7.12, 자료출처 <http://fashion.chosun.com>
- 정삼호. (1998). *현대패션모드*. 서울: 교문사.
- 정지년, 권기영. (2008). 팬츠장식의 변천과 내적 의미 연구 : 1969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 잡지에 나타난 장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6(10), 59-69.
- 정진숙. (2011). *여성복을 중심으로 본 한국 현대 패션의 흐름 ; 1950년대에서 현재까지*. 한국콘텐츠학회, 9(2), 17-24.
- 채금석, 千村典生. (2007). *세계패션의 흐름*. 서울: 지구문화사.
- 최진. (2008). *부츠 컷 청바지 패턴 설계 : 3차원 가상착의평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패션서울. (2016). 미리 보는 2016 S/S 데님트렌드.

자료검색일 2016.12.23, 자료출처 <http://www.fashionseoul.com>

패션전문자료편찬위원회. (1997). *패션전문자료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패션큰사전편찬위원회. (1999). *패션큰사전*. 서울: 교문사.

<http://www.fashionnetkorea.com/>

<http://fashionn.com/index.php/>

<http://navercast.naver.com/>

<http://section.blog.naver.com/>

<http://www.auction.co.kr/>

<https://univ20.com/>

<http://m.blog.daum.net/>

<http://www.donga.com/>

<http://www.wkorea.com/>

<http://www.missp.co.kr/>

<http://www.dint.co.kr/>

<http://www.vogue.co.kr/>